



Hello! I am Sister Marie Theresa Rishel. I entered the Sisters of Charity in 1954 as the oldest of five children of John and Margaret Rishel. I graduated from Seton Hill College with a Bachelor of Arts in Math. The National Institute of Science provided a challenging course of studies at Bowling Green State University. This led to a Masters of Arts in Math.



Forty years of my life in our community as a Sister of Charity were spent in "the west." For the most part I tramped through the Arizona desert teaching math to high school students. Native Americans enlivened our days with creative names such as Preston Many Goats and Raging Storm. They kept us plugged "into life on the reservation." Some of my time "out west" was in the southern state of Oaxaca, Mexico. Students from various Universities experienced the people and history of Mexico as we worked in Asilos de Ancianos (care facilities for the elderly). For the most part elderly of Mexico stay with their families. We found our people had no one.

We hiked up to the ruins of Monte Alban always listening to the many languages spoken in the state of Oaxaca. We appreciated the homes of these ancient ones, imagining the ball court as a lively scene of earlier competitions.



Moving across the border from Mexico to Guatemala I came to Casa Rosaria in Guatemala City. We were then at home with our little girls from three to eleven years of age. Many were left as orphans because of the violence in this Central American country. Our children slept in bunk-beds. As the lights went out I blessed them with, "*Duerme con los angelitos*"- Dream with the little angels. One night I heard a little voice respond, "*y tu con La Virgen Santisima y con Jesus.*" This little one gave me her most precious gift, a wish to "dream with the Virgin and Jesus."

In Rio Bravo, Sushetepeckes, Guatemala our catechists acted as vital life blood of the church. They were our Health Promoters, Teachers, and Prayer Leaders among other things. After their monthly meetings and a hot meal they returned to their villages with their little wooden boxes carrying the Eucharist for communion during the subsequent Sundays of the month.

This past ministry has prepared me to be a part of community development during these latest years.





안녕하세요! 마리 테레사 리셸 Marie Theresa Rishel 수녀입니다. 저는 아버지 존 리셸 John Rishel과 어머니 마가렛 Margaret 슬하에 5남매중 첫째로 태어났습니다. 1954년에 사랑의 씨튼 수녀회에 입회하여 씨튼힐 대학교에서 수학을 전공하고 전미 과학 연구소 the National Institute of Science가 보올링 그린 주립 대학교 Bowling Green State University에서 제공하는 과정에서 수학 석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사랑의 씨튼 수녀로서 살아온 공동체 삶 가운데 40년을 서부에서 지냈습니다. 대부분은 애리조나의 사막을 가르며

고등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쳤습니다. 그곳 미국 원주민들은 프레스톤 메니 고우츠 Preston Many Goats(프레스톤 많은 염소), 레이징 스톰 Raging Storm(몰아치는 폭풍)처럼 아주 창의적인 이름을 가졌습니다. 원주민들은 우리 삶에 활기를 더해 주었고 '원주민 보호 구역'의 삶에도 함께 할 수 있었지요. 서부를 떠난 후 얼마 동안 멕시코 남부의 와하카 Oaxaca주에서 보냈습니다. 여러 대학교에서 온 학생들과 함께 양로원에서 일하면서 멕시코인과 멕시코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멕시코 노인들은 가족과 함께 지내기 때문에 양로원에는 돌볼 노인이 없었습니다.

와하카주 사람들이 사용하는 여러 가지 언어를 들으면서 몬테 알반 Monte Alban 유적지까지 하이킹을 했습니다. 고대인이 살았던 집 유적지를 감상하면서 고대인들이 공을 가지고 경기장에서 신나게 경기하는 장면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멕시코에서 과테말라로 국경을 넘어 과테말라시의 까사 로사리아 Casa Rosaria에 갔습니다. 세 살부터 열한 살 소녀들이 지내는 집에 머물렀지요. 중앙아메리카의 이 나라에서는 폭력 때문에 많은 어린이가 고아로 버려졌습니다. 그곳 아이들은 2층 침대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밤에 불이 꺼지면 저는 아이들에게 스페인어로 "Duerme con los angelitos - 작은 천사들과 함께 꿈꾸거라"고 축복했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y tu con La Virgen Santisima y con Jesus- 수녀님도 성모님과 예수님과 함께"라고 답하는 작은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이 소녀는 "성모님과 예수님과 함께 꿈꾸세요"라는 소망을 담은 가장 소중한 선물을 저에게 전해주었습니다.



과테말라 수치테케페스 Sushetepeckes에 있는 리오브라보 Rio Bravo에서는 우리 교리교사들은 교회의 살아있는 생명줄 역할을 했습니다. 교리교사들은 보건관리 담당자, 교사, 기도 봉사자들이었습니다. 월모임과 식사를 마친 후에 이들은 작은 나무상자에 한 달 동안의 주일 영성체를 위해 성체를 모시고 자기 마을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이 지난 사도직의 경험을 통해 최근 몇 년 동안 수도회 경제개발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